문제1)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반면 제시문 (나)의 시적화자는 시 속 비둘기에게 공감을 한다.
(가)의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에게 공감을 하지 못했다. 또한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다. 그는 평소에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태인을 위한 활동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명령에만 따라서 행동하여 유태인들이 느낄 죽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유태인들을 학살하였다. 또한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의 결여로 자신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히만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시적화자는 (가)의 아이히만과는 달리 비둘기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 시 속에서 비둘기는 자신이 놀던 곳도 잃고 날아다니던 하늘도 잃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의 비둘기의 심정을 시적화자는 자신의 상황처럼 받아들여 함께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한다. 이를 통해 (나)의 시적화자는 비둘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시적화자와 마찬가지로 (다)의 아킬레우스도 공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맞이하게 될 죽음에 공감한다. 아킬레우스는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음을 맞았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죽음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나)의 시적화자와는 달리 부분적으로만 공감하였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죽음을 막게 될 것이라는 건 공감하였지만 뤼카온의 살려고 하는 의지에는 공감하지 못하였다. 뤼카온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애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뤼카온을 죽였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둘기와 동일시하는 (나)의 시적화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997자)

(문제2)

완벽한 공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주체적 판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공감이 이루어질 수있다. 또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지면 폭력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제시문 (가)에서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 할 유태인의 죽음과 그로인한 슬픔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히만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그는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국가의 명령을 자신의 의무로 삼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히만의 행동들 때문에 아이히만에게 공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폭력이 발생하였다.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입장에 서서 상상하고 있다. 또한 아킬레우스는 주체적으로 자신도 언젠간 맞게 될 죽음이라고 생각해 뤼카온을 죽인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을 죽인 행위가 온전히 주체적 행동에 근거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아의 영웅 헥토르에게 살해당했다. 뤼카온은 트로이아 왕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아킬레우스의 생각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를 위한 복수라는 생각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공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공감으로 인해 공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을 죽이는 폭력이 일어났다.

제시문 (라)에서 위딩턴은 강도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을 딱한 아이들이라 하며 연민을 느끼고 있다. 또한 워딩턴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사유의 과정을 통해 행동해 그 강도들을 용서하였다. 이는 강도들에 공감 한 것이다. 워딩턴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완벽한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폭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1017자)